

고전 하이라이트 강독 III

〈적천수천미〉와 〈자평수언〉

제1강 간지총론

제1강 간지총론

적천수

명나라 개국공신이었던 유기[劉基, 자(字) 백온(伯溫) (1311~1375) 저술

적천수집요(滴天髓輯要)

강희제 초기에 진소암(陳素菴)이 적천수의 원문을 주해(註解)해서 저술

적천수천미(滴天髓闡微)

도광제 임철초(任鐵樵, 1773~?)가 증주(增註)하여 1846년 저술
(〈적천수〉의 원문/원주 + 증주) - 필사본으로 전승되어 사본마다 내용 순서가 조금씩 다름
1933년 원수산((袁樹珊)이 적천수천미(滴天髓闡微)로 선집(撰輯)하여 발간

적천수징의(滴天髓徵義)

1935년 서락오(徐樂吾)가 증주(增註)
(〈적천수〉의 원문/임철초의 증주/서락오의 증주)

적천수보주(滴天髓補注)

1937년 서락오(徐樂吾)가 새롭게 주석 보충

〈자평진전〉과 〈적천수〉

오행의 일정한 법칙과 오행의 변화

정격 중심에서 변격 외격으로 확장

월령 중시에서 기세 중시

억부의 원리에 따라 월령에서 용신을 취하는 것에서

기세와 조후의 원리에 따라 월령에만 한정하지 않는 용신을 취함

제1강 간지총론

通神論

子平粹言
李虛中命書

天道 地道

欲識三元萬法宗 先觀帝載與神功
坤元合德機緘通 五氣偏全定吉凶

만법종(萬法宗)인 삼원(三元)을 알고자 하면,
먼저 제재(帝載)와 신공(神功)을 살펴보아야 한다.

곤원(坤元)은 하늘의 덕(德)을 합하여 기함(機緘)이 통하는데,
오기(五氣)가 치우치거나 온전함에서 길흉이 정해진다.

人道 知命

戴天履地人爲貴 順則吉兮凶則悖
要與人間開聾瞶 順逆之機須理會

천지 사이에 존재하는 것 가운데 사람이 귀한데,
순리에 맞는 것은 길하나 도리에 어긋난 것은 흉하다.

인간을 도와 어리석음을 깨우쳐주길 바라면,
순역지기(順逆之機)를 반드시 이해하여야 한다.

理氣 配合

理承氣行豈有常 進兮退兮宜抑揚
配合干支仔細詳 定人禍福與災祥

이(理)는 기(氣)를 이어받아 행하는데 어찌 일정함이 있을 것인가?
나아가기도 하고 물러서기도 하는데 억제(抑制)와 발양(發揚)이 마땅하여야 한다.
배합된 간지를 자세히 살펴보아 타인의 화복(禍福)과 재상(災祥)을 단정하라.

天干

五陽皆陽丙爲最 五陰皆陰癸爲至
五陽從氣不從勢 五陰從勢無情義

오양(五陽)은 모두 양이나 丙이 최고이고,
오음(五陰)은 모두 음이나 癸가 가장 지극하다.
오양(五陽)은 종기(從氣)하여 종세(從勢)하지 않으나,
오음(五陰)은 종세(從勢)하여 정의(情義)가 없다.

地支

陽支動且強 速達顯災祥
陰支靜且專 否泰每經年

양지(陽支)는 동적이고 또한 강하여 재상(災祥)이 빨리 나타나나,
음지(陰支)는 안정되고 또한 두터워 비태(否泰)가 항상 오랜 세월이 지나서 나타난다.

地支

生方怕動庫宜開 敗地逢沖子細推
支神只以沖爲重 刑與穿兮動不動

생방(生方)은 충동(沖動)을 두려워하나,
고장(庫藏)은 마땅히 충개(沖開)하여야 하고,
패지(敗地)가 봉충(逢沖)하면 자세하게 추리하여야 한다.

지신(支神)에는 다만 충(沖)이 중요하고,
형(刑)과 천(穿)에는 동(動)이 있고 부동(不動)이 있다.

地支

暗沖暗會尤爲喜 彼沖我兮皆沖起
旺者沖衰衰者拔 衰神沖旺旺神發

암충(暗沖)과 암회(暗會)는 더욱 기쁜 것인데,
상대방이 나를 충(沖)하는 것은 모두 충기(沖起)이다.

왕신이 쇠신을 충하면 쇠신이 뿌리뽑히고,
쇠신이 왕신을 충하면 왕신이 발노한다.

제1강 간지총론

干支總論

子平粹言
李虛中命書

陰陽順逆之說 洛書流行之用 其理信有之也 其法不可執一

음양순역지설(陰陽順逆之說)은 낙서(洛書)의 유행지용(流行之用)인데,
그 이치는 참으로 그러하나, 그 용법은 하나를 고집하고 변통을 몰라서는 아니 된다.

故天地順遂而精粹者昌 天地乖悖而混亂者亡 不論有根無根 俱要天覆地載

고로 천지가 순수(順遂)하고 정수(精粹)한 자는 창성하고,
천지가 괴패(乖悖)하고 혼란(混亂)한 자는 망하는데,
유근무근(有根無根)을 논하지 않고, 모두 천복지재(天覆地載)가 필요하다.

天全一氣 不可使地德莫之載 地全三物 不可使天道莫之容

천전일기(天全一氣)라도 지덕(地德)이 실어주지 않으면 아니 되고,
지전삼물(支全三物)이라도 천도(天道)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니 된다.

陽乘陽位陽氣昌하면 最要行程安頓이고,
陰乘陰位陰氣盛하면 還須道路光亨이니라.

양승양위(陽乘陽位)하여 양기가 창성하면 가장 필요한 것은 행운이 안돈(安頓)한 것이고,
음승음위(陰乘陰位)하여 음기가 왕성하면 또한 반드시 행운이 광형(光亨)하여야 한다.

地生天者 天衰怕沖 天合地者 地旺喜靜

지생천자(地生天者)는 천간이 쇠약하면 충을 두려워하고,
천합지자(天合地者)는 지지가 왕상하면 안정됨을 좋아한다.

甲申戊寅 眞爲殺印相生 庚寅癸丑 也坐兩神興旺

甲申과 戊寅은 참된 살인상생이고,
庚寅과 癸丑은 좌하(坐下)에서 양신(兩神)이 흥왕하다.

上下 貴乎情協 左右 貴乎同志

상하(上下)는 정협(情協)이 귀한 것이고,
좌우(左右)는 동지(同志)가 귀하다.

始其所始 終其所終 富貴福壽 永乎無窮

시작하여야 할 곳에서 시작하고 끝나야 할 곳에서 끝나치면,
부귀복수는 영원토록 무궁하다.

子平粹言
李虛中命書

원문과 임철초 증주

人道 知命

(원문)

戴天履地人爲貴 順則吉兮凶則悖 要與人間開聾瞶 順逆之機須理會

천지 사이에 존재하는 것 가운데 사람이 귀한데,
순리에 맞는 것은 길하나 도리에 어긋난 것은 흉하다.

인간을 도와 어리석음을 깨우쳐주길 바라면,
순역지기(順逆之機)를 반드시 이해하여야 한다.

임철초 증주

任氏曰 此言有至理 惟恐後人學命 不究順悖之機 妄談人命 貽悟不淺
混看奇格異局 一切神殺 荒唐取用 桃花咸池 專論女命邪淫 受責鬼神
金鎖鐵蛇 謬指小兒關殺 憂人父母 不論日主之衰旺 總以財官爲喜
傷殺爲憎 定人終身 不管日主之強弱 盡以食印爲福 梟劫爲殃

不知財官等名 乃六親取用而列 竟認作財可養命 官可榮身 何其愚也

如財可養命 則財多身弱者 不爲富屋貧人 而成巨富 官可榮身 則身衰官重者 不至夭賤 而成顯貴
余詳考古書 子平之法 全在四柱五行 察其衰旺 究其順悖 審其進退 論其喜忌 是謂理會

至於奇格異局 神殺納音諸名目 乃好事妄造 非關命理休咎 若據此論命
必致以正爲謬 以是爲非 訛以傳訛 遂使吉凶之理 昏昧難明矣

書云 用之爲財不可劫 用之爲官不可傷 用之印綬不可壞
用之食神不可奪 此四句 原有至理 其要在一用字 無如學命者
不究用字根源 專以財官爲重 不知不用財星儘可劫 不用官星儘可傷
不用印綬儘可壞 不用食神儘可奪 順悖之機不理會 與聾瞶何異
豈能論吉凶 辨賢否 而有功於世哉 反誤世惑人者多矣

제1강 간지총론

임씨 말하되, 이 말에는 지극한 이치가 있다. 오직 염려하는 것은 후인이 학명(學命)하건대, 순패지기(順悖之機)를 연구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운명을 망령되게 말하여 잘못을 끼치는 것이 적지 아니하고, 기격(奇格)과 이국(異局)을 섞어서 보고 일체의 신살(神殺)을 황당하게 취용(取用)하는 것이다.

도화(桃花)와 함지(咸池)는 여인이 간사하고 음란하다고 전적으로 논하고, 귀신으로부터 벌을 받는 것은 금쇄(金鎖)와 철사(鐵蛇) 때문이라고 하며, 그릇되게 소아관살(小兒關殺)을 가리켜서 타인의 부모를 걱정하게 한다.

일주의 쇠왕(衰旺)은 논하지 아니하고 모두 ‘재관(財官)은 좋은 것이고 상관(傷官)과 칠살(七殺)은 꺼리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타인의 평생을 단정하며, 일주의 강약(強弱)은 논하지 아니하고 모두 ‘식신과 인수는 복이고 편인과 비겁은 재앙이다’라고 하며, 재관(財官) 등의 이름은 육친을 취용하여 나열하였을 뿐임을 알지 못하고, 마침내 ‘재(財)는 가히 양명하고 관(官)은 가히 영신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어리석은가?

제1강 간지총론

만약 재(財)가 가히 양명(養命)한다면 재다신약인 자는 부옥빈인(富屋貧人)이 아니고 마침내 거부(巨富)가 되며, 관(官)이 가히 영신(榮身)한다면 쇠관중(身衰官重)인 자는 요절과 천함에 이르지 아니하고 마침내 현귀하게 될 것이다.

내가 고서(古書)를 상세히 연구하건대, 자평지법(子平之法)은 전적으로 사주오행(四柱五行)에 있다. 그 쇠왕(衰旺)을 살피고, 그 순패(順悖)를 연구하며, 그 진퇴(進退)를 심사하여, 그 희기(喜忌)를 논하는데, 이것을 ‘이회(理會)’라고 말한다.

기격(奇格) 이국(異局)이나 신살(神殺) 납음(納音) 등의 모든 명칭은, 일 벌리기를 좋아하여 망령되게 만들어진 것이며 명리(命理)의 휴구(休咎)와는 관계가 없다.

만약 이것을 근거로 하여 명(命)을 논하면, 반드시 바른 것이 거짓이 되고, 옳은 것이 틀린 것이 되며, 잘못이 그대로 전하여지니 마침내는 길흉의 이치가 혼미하고 밝지 못하게 된다.

제1강 간지총론

서(書)에서

‘재(財)가 용신이면 겁탈하여서는 아니 되고(用之爲財不可劫),
관(官)이 용신이면 상하여서는 아니 되며(用之爲官不可傷),
인수(印綬)가 용신이면 파괴하여서는 아니 되고(用之印綬不可壞),
식신(食神)이 용신이면 탈식(奪食)하여서는 아니 된다(用之食神不可奪)’라고 말한다.

이 네 구절에는 원래 지극한 이치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중요한 것은 ‘용(用)’이라는 한 글자에 있다.

그러나 학명자(學命者)가 ‘용(用)’이라는 글자의 근원을 연구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재관(財官)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재성(財星)이 용신이 아니면 모두 겁탈할 수 있고, 관성(官星)이 용신이 아니면 모두 손상할 수 있으며,
인수(印綬)가 용신이 아니면 모두 괴인(壞印)할 수 있고,
식신(食神)이 용신이 아니면 모두 탈식(奪食)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순패지기(順悖之機)를 이해하지 못한 것인데, 어찌 농외(聾瞶)와 다를 것인가?

어찌 능히 길흉(吉凶)을 논하고 현비(賢否)를 분별하여 세상에 공을 세울 것인가?

도리어 세상을 그릇되게 하고 타인을 미혹케 하는 것이 많을 것이다.

건륭제(乾隆帝)

1711년생 1735년 즉위 (재위기간 60년)

天干庚辛丙丁 正配火煉秋金 地支子午卯酉 又配坎離震兌 支全四正 氣貫八方 然五行無土 雖誕秋令 不作旺論 最喜子午逢沖 水剋火 使午火不破酉金 足以輔主 更妙卯酉逢沖 金剋木 則卯木不助午火 制伏得宜 卯酉爲震兌 主仁義之眞機 子午爲坎離 宰天地之中氣 且坎離得日月之正體 無消無滅 一潤一暄 坐下端門 水火既濟 所以八方賓服 四海攸同 金馬朱鳶 並隸版圖之內 白狼元兎 咸歸覆幬之中 天下熙寧也.

丙	庚	丁	辛
子	午	酉	卯
己	庚	辛	壬
癸	甲	乙	丙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천간의 庚辛丙丁은 ‘火가 추금(秋金)을 단련한다’는 것에 정확히 배합되고, 지지의 子午卯酉는 또한 감리진태(坎離震兌)에 배합되는데, 지지에 사정(四正)이 모두 있으니 기(氣)가 팔방에 이어졌다.

그러나 오행에 土가 없으니 비록 가을에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왕하다고 논할 수 없는데, 가장 기쁜 것은 子午가 봉충(逢沖)하여 水가 火를 극하니, 午火로 하여금 酉金을 파(破)하지 못하게 하여 족히 일주를 돕는다. 더욱 오묘한 것은 卯酉가 봉충(逢沖)하여 金이 木을 극하니, 卯木이 午火를 돕지 아니하고 제복(制伏)이 마땅함을 얻었다. 卯酉는 진태(震兌)인데 인의(仁義)의 진기(眞機)를 주관하고, 子午는 감리(坎離)인데 천지(天地)의 중기(中氣)를 주재한다. 또한 감리(坎離)는 日月의 정체(正體)를 얻어서 소멸됨이 없고, 하나는 축축하게 하고 하나는 따뜻하게 하는데, 좌하(坐下)가 단문(端門)이니 수화기제(水火既濟)를 이루었다.

이에 팔방(八方)이 복종하여 오고 사해(四海)가 함께 하니, 금마주연(金馬朱鳶)이 모두 왕권의 판도(版圖)안에 예속되었고, 백랑원토(白狼元兎)가 모두 부도(覆幬) 안에 귀속하여, 천하가 흥성하고 평화로웠다.

제1강 간지총론

董中堂造 戊土生于季春 午時 似乎旺相 第春時虛土 非比六九月之實也
且兩辰蓄水爲濕 足以洩火生金 干透兩庚 支會申辰 日主過洩
用神必在午火 喜水木不見 日主印綬不傷 精神旺足 純粹中和
一生宦海無波 三十餘年 太平相業 直至子運會水局 不祿 壽已八旬矣.

戊	戊	庚	庚				
午	辰	辰	申				
戊	丁	丙	乙	甲	癸	壬	辛
子	亥	戌	酉	申	未	午	巳

동(董) 중당(中堂)의 명조이다.

戊土가 계춘(季春)에 태어났고 午時이니 왕상(旺相)한 것 같으나,

다만 봄의 허토(虛土)는 6월과 9월의 견실함에 비할 바가 아니다.

또한 양진(兩辰)은 水를 간직하여 습하니 족히 설화생금(洩火生金)*하는데,

천간에 양경(兩庚)이 투출하고 지지에 申辰이 수국(水局)을 이루어 일주가 지나치게 설기(洩氣)되니 용신은 필히 午火에 있다.

기쁘게도 水木이 나타나지 않아서 일주(日主)와 인수(印綬)가 상하지 않았으니,

정신(精神)이 크게 넉넉하고 순수중화(純粹中和)하다.

일생 벼슬길에서 풍파가 없었고, 30여년 동안 재상으로서 세상을 태평하게 다스렸다.

마침내 子運에 이르러서는 수국(水局)을 이루니 세상을 떠났는데 수명이 팔십을 넘었다.

理氣 配合

(원문)

理承氣行豈有常 進兮退兮宜抑揚 配合干支仔細詳 定人禍福與災祥

이(理)는 기(氣)를 이어받아 행하는데 어찌 일정함이 있을 것인가?

나아가기도 하고 물러서기도 하는데 억제(抑制)와 발양(發揚)이 마땅하여야 한다.

배합된 간지를 자세히 살펴보아 타인의 화복(禍福)과 재상(災祥)을 단정하라.

임철초 증주

進退之機 不可不知也 非長生爲旺 死絕爲衰
必當審明理氣之進退 庶得衰旺之眞機矣

凡五行旺相休囚 按四季而定之 將來者進 是謂相 進而當令 是謂旺
功成者退 是謂休 退而無炁 是謂囚 須辨其旺相休囚 以知其進退之機
爲日主 爲喜神 宜旺相 不宜休囚 爲凶煞 爲忌神 宜休囚 不宜旺相 然相妙于旺
旺則極盛之物 其退反速 相則方長之氣 其進無涯也 休甚乎囚 囚則既極之勢
必將漸生 休則方退之氣 未能遽復也 此理氣進退之正論也 爰舉兩造爲例

제1강 간지총론

나가고 물러서는 이치를 몰라서는 안 된다. 장생이라고 해서 왕한 것이 아니고 사절이라고 해서 쇠약한 것도 아니다.
반드시 이(理)와 기(氣)의 진퇴를 잘 살펴 알아야 왕쇠의 진정한 이치를 알게 된다.

무릇 오행의 왕상휴수(旺相休囚)는 사계절에 따라 결정한다.

앞으로 오는 것은 나아가는 것으로 상이라 하고, 앞으로 나아가 월령이 된 것을 왕이라 하고,
공을 쌓고 물러서는 것을 휴라 하고, 물러서서 기가 없는 것을 수라고 한다.

반드시 이 왕상휴수를 분별할 줄 알아야 진퇴의 이치를 알 수 있다.

일주와 희신은 왕상한 것이 좋고 휴수하면 좋지 않다. 흉살과 기신은 휴수한 것이 좋고 왕상하면 좋지 않다.

그런데 상이라는 것이 왕보다 더 묘하다.

왕이라고 하는 것은 흥성하기가 극에 도달한 것이니 그 물러나는 것이 아주 빠르다.

그러나 상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자라나는 기라서 앞으로 나감에는 장애가 없다.

휴라고 하는 것은 수보다 더 묘하다.

왜냐하면 수라고 하는 것은 그 기세가 이미 극에 도달했으니 필히 앞으로 점점 자라는 것이지만

휴라고 하는 것은 방금 물러선 기이니 다시 돌아 올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이와 기의 진퇴의 올바른 이론이다.

아래에 두 개 사주를 예로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제1강 간지총론

甲木休囚已極 庚金祿旺剋之 一點丁火 難以相對 加之兩財生殺 似乎殺重身輕
不知九月甲木進氣 壬水貼身相生 不傷丁火 丁火雖弱 通根身庫 戌乃燥土
火之本根 辰乃溼土 木之餘氣 天干一生一制 地支又遇長生 四柱生化有情
五行不爭不妒 至丁運科甲聯登 用火敵殺明矣 雖久任京官 而官資豐厚 皆一路南方運也

壬	甲	庚	丁		
申	辰	戌	亥		
甲	乙	丙	丁	戊	己
辰	巳	午	未	辛	酉

갑목이 휴수하기가 극에 달했는데 경금이 록에 있어 왕하여 극하고 있고 하나 있는 정화가 경금을 상대하기가 어렵다.
재성 두 개가 칠살을 생하니 칠살이 강하고 일주가 쇠약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9월의 갑목이 진기하는 때이고 그 옆에 임수가 가까이 생하여 주니 정화가 손상되지 않고,
정화가 비록 쇠약하다고는 하나 창고에 뿌리가 통하여 있고, 술토란 건조한 토로서 화 본래의 뿌리이고,
진토란 습한 토로서 목의 여기이다. 그러니 천간에서 하나가 생하고 하나가 억제하여 주고 있고,
지지에는 장생이 있으니 사주가 생화하여 유정하고 오행이 서로 다투거나 싸우지 않고 있다.
정화운에 들어서 과거시험에 연이어 합격하였는데 이것은 화를 용신으로 삼아 칠살을 극한 것이 분명하다.
오랫동안 서울에서 관직에 있었고 녹봉도 아주 풍성하였는데 이것은 모두 행운이 남방운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제1강 간지총론

此與前大同小異 以俗論之 甲以乙妹妻庚 凶爲吉兆 貪合忘沖 較之前造更佳
何彼則翰苑 此則寒衿 不知乙庚合而化金 反助其暴 彼則甲辰 辰乃溼土 能生木
此則甲戌 戌爲燥土不能生木 彼則申辰拱化 此則申戌生殺 彼則甲木進氣
而庚金退 此則庚金進氣 而甲木退 推此兩造 天淵之隔 進退之機 不可不知也

壬	甲	庚	乙		
申	戌	辰	亥		
甲	乙	丙	丁	戊	己
戌	亥	子	丑	寅	卯

이 사주는 앞에 예로 든 사주와 대동소이하다.
일반사람들의 논리에 의하면 갑목이 여동생 을목을 경금의 처로 시집보내니 흥한 것이 길로 변하게 되고,
합하는 것을 탐내어 충하는 것을 잊으니 앞의 사주보다 더 좋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 사주는 한림원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은 가난한 선비로 있게 되었는가.
이것은 을목과 경금이 합하여 금으로 화해서는 도리어 그 난폭함을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앞의 사주는 일주가 갑진인데 진토는 습한 토로서 토을 생하여 줄 수 있지만
이 사주는 일주가 갑술인데 술토는 건조한 토라서 목을 생하여 주지 못하고 있다.
또한 앞의 사주는 신금과 진토가 합하여 화하나 이 사주는 신금과 술토가 칠살을 생하여 주고 있고,
앞 사주는 갑목이 진기하고 경금이 퇴기하고 있으나 이 사주는 경금이 진기하고 갑목이 퇴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두 사주를 해석하여 보면 천지 차이가 나는데 진퇴의 이치를 몰라서는 안 된다.

제1강 간지총론

此章乃壁謬之要領也 配合干支 必須正理 搜尋詳推 與衰旺喜忌之理 不可將四柱干支置之弗論
專從奇格異局神殺等類妄譚 以致禍福無憑 吉凶不驗 命中至理 只存用神 不拘財官印綬比劫食傷梟殺
皆可爲用 勿以名之美者爲佳 惡者爲憎 果能審日主之衰旺 用神之喜忌 當抑則抑
當扶則扶 所謂去留舒配 取裁礪當 則運途否泰 顯然明白 禍福災祥 無不驗矣

이 장의 말이 바로 황당무계한 논리를 비판하는데 있어서의 요령이다.
천간지지의 배합에 관하여 반드시 올바른 이론으로 그것을 찾아내고 상세히 추리해야 하며
쇠왕희기의 이치를 상세히 밝혀야 하지 사주의 천간지지는 보지 않고
전적으로 기격이나 신살 등만으로 터무니없이 논하게 되면 화와 복 그리고 길흉이 적중되지 않는다.
명리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용신에 있다.
재성, 관성, 인수, 비겁, 식상, 효살, 어느 것이나 관계없이 다 용신으로 될 수 있는데
그 명칭이 듣기 좋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듣기 나쁘다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니다.
정말로 정확하게 일주의 쇠왕을 분석하여 용신의 희기에 따라 억제할 것은 억제해 주고 도와 줄 것은 도와준다고 하면
이것이 이른바 없애거나 남기거나 하는 것을 잘 배합시킨다라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명(命)에 있어서 불행과 행운이 뚜렷하게 명백해지고 화와 복 그리고 길흉이 하나도 맞지 않는 것이 없게 된다.

제1장 간지총론

此造以俗論之 干透三奇之美 支逢拱貴之榮 且又會局不沖 官星得用 主名利雙收
然庚申生于季春 水本休囚 原可用官 嫌其支會水局 則坎增其勢 而離失其滅 官星必傷
不足爲用 俗以强衆敵寡而用壬水 更嫌三奇透戊 根深奪食 亦難作用 甲木之財 本可借用
疎土衛水 洩傷生官 似乎有情 不知甲木退氣 戊土當權 難以疎通 縱用甲木 亦是假神
不過庸碌之人 況運走西南 甲木休囚之地 雖有祖業 亦一敗而盡 且不免刑妻剋子
孤苦不堪 以三奇拱貴等格論命而不看用神者 皆虛謬耳

壬	庚	戊	甲
午	申	辰	子
甲	癸	壬	辛
戊	酉	申	未
		午	巳

이 사주를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이론에 의하면 천간에는 삼기(三奇)가 투출되어 있고 지지에는 공귀(拱貴)를 만나며
또 합국(合局)으로 충하지 않고 있으니 관성을 용신으로 하여 명예와 재산운이 다 좋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경신이 늦은 봄인 진월에 태어났고, 수가 본래 휴수라서 원래는 관성을 용신으로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지지가 삼합수국을 이루고 있어 수의 기세가 강하고 화가 위세를 잃게 되면 화인 관성이 손상을 입게 되어 용신으로 할 수 없다.

그래서 강하고 많은 것으로 작은 것을 대적하려고 임수를 용신으로 하려고 하니

삼기중의 무토가 투출되어 지지에 뿌리를 깊이 내려 식신을 박탈하고 있으니 이 역시 용신으로 하기 어렵다.

본래는 용신인 재성 갑목을 빌려 사용하여 토를 소통시키고 수를 보위하고, 상관을 설기시키고 관성을 생하여 주면 아주 유정한 것 같아 보이지만
갑목이 퇴기에 있고 무토가 월령에서 권세를 쥐고 있다보니 갑목이 토를 소통시킬 수가 없다.

가령 갑목을 용신으로 한다고 해도 그것은 가짜 용신에 불과한 것이니 그저 범속한 인간에 불과하다.

거기다가 더욱 행운이 남서쪽으로 흐르고 있어 갑목이 휴수하니 비록 조상이 물려준 재산은 있었지만 모두 파산해 버리고 또한 처가 죽고
자식도 잃어 혼자 고독함을 면치 못하였다. 그러므로 삼기, 공귀 등의 격식으로 명을 논하고 용신을 논하지 않는 것은 모두 터무니없이 틀린 것이다.

제1강 간지총론

此造初看 一無可取 天干壬丙一剋 地支子午遙沖 且寒木喜陽 正遇水勢泛濫 火炁剋絕
似乎名利無成 余細推之 三水二土二火 水勢雖旺 喜無金 火本休囚 幸有土衛 謂兒能救母
況天干壬水生乙木 丙火生己土 各立門戶 相生有情 必無爭剋之意 地支雖北方
然喜己土原神透出 通根祿旺 互相庇護 其勢足以止水衛火 正謂有病得藥 且一陽後萬物懷胎
木火進氣 以傷官秀氣爲用 中年運走東南 用神生旺 必是甲第中人 交寅 火生木旺
連登甲榜 入翰苑 是以青雲直上 由此兩造觀之 配合干支之理 其可忽乎

壬	乙	己	丙		
午	丑	亥	子		
乙	甲	癸	壬	辛	庚
巳	辰	卯	寅	丑	子

이 사주를 언뜻 보기에는 보잘것없이 보인다. 천간에는 임수와 병화가 상극하고 지지에는 자수와 오화가 멀리서 상충하고 있다.
그리고 차가운 나무는 양을 좋아하는데 물의 기세가 범람하여 화를 극하니 명예와 재산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게 보인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세 개의 수, 두 개의 토, 두 개의 화로 되어 있어 수의 기세가 비록 왕하지만 금이 없고,
화가 본래는 휴수지만 토가 있어 보위해 주고 있으니 이른바 이것은 아들이 어머니를 구제하는 격식으로 된다.

거기다가 천간에는 임수가 을목을 생하고 병화가 기토를 생하여 각각 파벌을 세워 상생하기가 유정하고 서로 다투어 극하려는 뜻이 없으며,
지지는 비록 북쪽으로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기토 원신이 천간에 투출되어 록에 뿌리를 내려 왕하여 서로가 보호해 주고 있으니
그 기세가 능히 수를 막아내고 화를 보위해 줄 수가 있다. 이것이 이른바 병에 걸렸는데 좋은 약을 얻었다라는 격식이다.

그리고 시절이 일양(一陽)이 지난 후라 만물이 잉태하는 때로서 목화가 진기하고 있으니 빼어난 상관을 용신으로 한다.

중년운이 동남쪽으로 들어서니 용신이 생을 받아 왕하게 되어 과거시험에 합격하고, 인목대운에는 화의 장생이고 목이 왕하니
연이어 과거시험에 합격하여 한림원에 들어가 벼슬길에서 입신출세하였다.

이 두 개의 사주에서 볼 수 있듯이 천간지지의 배합의 이치를 소홀히 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